대학생활세미나 보고서

201814003 김은정

**서론**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서 책을 읽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터라서 그런지 책을 접하는 것은 저에게 가장 쉬운 일 중 하나였습니다. 전래동화와 관련된 책부터 아이들을 위한 책 60권, 독서 토론 수업 준비를 위한 책 읽기, 역사를 위한 등등 책은 제 인생에서 거의 땔 수 없는 소꿉친구와 같았습니다. 특히 제가 가장 책을 많이 읽었던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과 도서관을 거의 매일 다녔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학원가는 차 안에서도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직전가지 하루에 거의 한권은 꼬박꼬박 읽었고 도서관에 있는 인문학 책을 전부 읽어보겠다는 기세로 독파해 나가서 1년 300권가까이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그다지 좋지 않은 버릇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책을 편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인문학 소설과 추리 소설 등을 비롯한 책을 제외하고 수필이나 공부를 위한 책 혹은 잡지서적은 잘 읽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고전은 읽었던 어떠한 것들 중 가장 손대지 않은 책 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책에 편식이 심했던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책들 또한 문학과 관련된 책 입니다. 우선 단편소설 중에서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책은 사실 제가 찾아 읽었다기 보다는 문학 수업을 받던 중 나왔던 많은 책들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마도 수업시간에 보여주셨던 영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단편영화처럼 제작한 영상이 있었는데 수업시간에 보았던 그 영상이 생각보다 책의 내용을 더 잘 반영하고 있었기에 오래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편소설 중에는 넬레 노이하우스 작가님의 추리소설 작품 중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이라는 책과 역사와 관련된 책으로 황태자비 살해사건 이라는 책등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추리소설을 좋아했던 저는 밀실살인사건이라는 책이나 반전이 있는 책을 좋아했습니다. 또한 국내의 책보다는 번역체의 책을 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커가면서 책을 읽는 행동보다는 분석하는 교과서적 배움을 더 중요시 하다보니 책이랑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지금은 가끔 읽어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골라보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렸을 적 책이 상상과 그림이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은 종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책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태 읽었던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론**

최근 제가 읽고 있는 책은 비행운이라는 책입니다. 비행운은 구름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정말 행운이 아니한, 행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은 김애란 작가님의 소설로 문문이라는 가수가 표절을 했고 논란이 된 책이기도 했습니다. 총 8개의 단편을 묶은 책으로 현재 저는 4번째의 단편을 읽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게 이 책은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하는 책이었습니다. 내용이 우울하고 비관적일 때도 있었고 한 사람의 삶에 우울한 부분을 극대화 시켜 현실성 없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작가가 무엇을 의도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작가의 말을 보았을 때 이런 말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무언가 나를 지나갔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당신도 보았느냐고 손가락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지만 그것은 이미 그곳에 없다. 무언가 나를 지나갔는데 그게 뭔지 몰라서 이름을 짓는다. 여러 개의 문장을 길게 이어서 누구도 한 번에 부를 수 없는 이름을. 기어코 다 부르고 난 뒤에도 여전히 알 수 없어 한 번 더 불러보게 만드는 그런 이름을. 나는 그게 소설의 구실 중 하나였으면 좋겠다. 서른의 한 장면은 내 가족, Y의 일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녀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작가의 말과 이 책의 내용을 곰곰히 바라보다보면 우리가 겪는 불안과 우울 그리고 삶에 대한 고찰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이 책을 바라보고 있는 저도 언젠가 서른이 되고 또 사회를 나아갈 동안 마주할 불안들이 담겨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가님께서 표현하려 했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할 지라도 또 다른 의미를 읽는 독자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책과의 관계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까요? 저는 책을 분류하는 기준을 먼저 세웠습니다. 우선 책을 인(人), 지(知), 고(古) 의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Based on people, Finding Knowledge and old thing. <사람을 바탕으로 지식과 옛 것을 찾아서.> 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람 인은 자기계발서를 알 지의 지는 세상을 알라는 뜻에서 소설과 비문학 등 여러가지의 책을 범주에 넣었고 옛 고의 경우는 고전소설을 뽑았습니다. 현재 100권 중 대표적인 6권을 뽑자면 자기계발서에서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미움받을 용기 가 있고 지의 경우에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미등록자 그리고 고에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 자기만의 방을 선정해 두었습니다. 책 조달 방법에는 사실 도서관이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공회대 도서관은 종종 들르는 편인데 많은 도서들과 조용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방학이나 혹은 공강을 이용하여 한권씩 읽어나가고 주말에도 읽을 수 있도록 한권씩은 꼭 빌려 읽을 생각입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몇 권 집에 사두는 것입니다. 소설이나 소장하고 싶은 책의 경우에는 온라인 서점 장바구니에 담아뒀다가 종종 돈이 생기면 구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구할 방법에는 이렇게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책을 읽을 곳은 대부분 책상 앞이나 혹은 집이라면 침대가 될 것 같습니다. 집중력 있게 독파하고 싶다면 책상 앞에 앉아 한시간이고 원하는 분량을 읽을 때까지 앉아있는 편이고 마음 편히 다시 읽거나 혹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글이라면 침대에 기대 베드테이블을 펴 놓고 읽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독파하다 보면 대학교 4년동안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

저는 책과 어렸을 적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고 한편의 그림과 같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무척 좋았습니다. 커가면서 책을 점점 읽지 않게 되면서 책은 제게 그저 공부해야할 무언가가 되어갔지만 앞으로 책이랑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상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책과 그림과 같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내용들이 그림처럼 상상된다는 것은 제가 그만큼 책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저는 책과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고 싶습니다. 또한 책을 통해 우리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안에 많은 이야기들은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많은 경험은 또 오늘의 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책들과 함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얻고 싶은 것은 총 3가지입니다. 첫번째로는 사회에 관해서 알아가고 싶습니다. 책은 사회를 비꼬아 만들어진 책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 뿐만 아니라 책 속에서 다른 나라들의 사회를 경험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통해 사회를 많이 경험하면 사회초년생인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평소 책을 읽고 나서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바라보면 이 책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 읽었던 책을 다시 읽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단순히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라기보다 책에 아무리 공감해도 딱 그 순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랑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만큼 더 오래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책을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책은 혼자 간직하기 보다 누군가와 의견을 나누고 좋은 점과 느낀점을 공유할 수 있을 때 가장 빛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때 친구들과 책을 추천 받고 추천 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이처럼 책이랑 좋은 관계를 맺고 누군가와 취향을 공유한다면 분명 사회적인 관계 역시 도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읽고싶은 책 100권 중 63개를 뽑아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읽고싶은 책 목록 63선>

|  |  |
| --- | --- |
| **책 제목** | **책 유형** |
| 마시멜로 이야기 | 人 |
|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 人 |
| 프랭클린 자서전 | 人 |
|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 人 |
| 미움받을 용기 | 人 |
| 생각의 탄생 | 人 |
| 열정 | 人 |
|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 人 |
| 아웃라이어 | 人 |
| 위기를 경영하라 | 人 |
| 성공한 CEO에서 위대한 인간으로 | 人 |
|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 人 |
| 대니얼 골먼의 EQ감성지능 | 人 |
|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 人 |
| 영혼의 연금술사 | 人 |
| 행운 | 人 |
| 행복한 이기주의자 | 人 |
| 어려움보다 키가 더 커질 때까지 | 人 |
| 꿈꾸는 다락방 | 人 |
|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나에게 | 人 |
| 82년생 김지영 | 知 |
|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 知 |
|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 知 |
| 미등록자 | 知 |
| 능소화 | 知 |
| 죽여 마땅한 사람들 | 知 |
| 방황하는 메아리 | 知 |
| 바깥은 여름 | 知 |
| 인간 실격 | 知 |
| 아몬드 | 知 |
| 내게 무해한 사람 | 知 |
| 경애의 마음 | 知 |
| 데미안 | 知 |
| 오베라는 남자 | 知 |
|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 | 知 |
| 파과 | 知 |
| 앵무새 죽이기 | 知 |
| 연애의 행방 | 知 |
|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 知 |
| 오만과 편견 | 知 |
| 1984 | 古 |
| 걸리버 여행기 | 古 |
| 구운몽 | 古 |
| 고백록 | 古 |
| 구토 | 古 |
| 군주론 | 古 |
| 꿈의 해석 | 古 |
|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 | 古 |
| 이반 일리치의 죽음 | 古 |
| 자기만의 방 | 古 |
| 데카메론 | 古 |
| 닥터 지바고 | 古 |
|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 古 |
| 고도를 기다리며 | 古 |
| 레 미제라블 | 古 |
| 루쉰 소설 전집 | 古 |
| 마의 산 | 古 |
| 멋진 신세계 | 古 |
| 모비 딕 | 古 |
| 모든 것은 무너진다 | 古 |
| 무기여 잘 있거라 | 古 |
| 백 년 동안의 고독 | 古 |
| 분노의 포도 | 古 |